

“대학생 포교에 역량 집중”

직무대행 송묵 스님 27일 포교원 신년 계획 밝혀

지역사찰·대학동아리 연계 포교법 전면 재개정 추진도



별된 21년째에 접어든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대학생 불자 확대를 위한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무대행 송묵·사진)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2560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올해 사업 기조를 ‘중앙·교구 균형발전 추진 및 협력’으로 정했다. 이는 제34대 총무원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포교제도 개선 및 교구중심의 지역포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점차 약화되고 있는 대학생 포교에 지역사찰이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교원장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현재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이 거의 붕괴된 상태다. 전국에 145개 불교동아리가 있으나 각각 명수는 20명, 적게는 4-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취직문제로 인한 스펙 치중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찰이 대학 불교동아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범회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대학생 포교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연계, 제주부터 강원까지 총 10개 지역 대학생들에게 방학마

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학생전법단을 청년대학생전법단으로 확대·개편, 학교 중심이 아닌 스님 및 사찰과 연계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불자들이 외국에서 신생활하며 언어공부를 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고자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해외사찰과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 같은 대학생 포교사업을 펼쳐 청년불자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교원은 대학생 포교 외에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포교법을 전면 검토해 제·개정하고, 포교의 주체를 사찰·스님·신도회 등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교구본사와 말사 간 포교활동 체계를 공유하고, 주제적인 신도 배가 운동을 전개하도록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상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포교사들을 집중 관리해 현대사회 가족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법회를 장려하면서 신도 평균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본말사 성보대장 정비나선다

문화부, 26일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서 밝혀

조계종이 교구성보대장 일체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교구 총무행정 이양 정책에 따라 종단 성보대장에 대한 교구 말사의 열람권도 부여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브리핑했다.

문화부의 올해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성보 문화재 관련 정책들이다. 문화부는 △본사 단위 성보 역량 강화 △불교문화유산 현안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문화재 관계 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문화재 정책으로 추진한다.

특히 본사 단위 성보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는 본말사 성보대장의 일체 정비가 눈길을 끈다. 이는 종단의 성보대장과 교구본사, 사찰 성보대장의 일치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구본사와 말사의 성보대장을 교구 성보 담당자가 종단 성보 대장 비교 후 종단에 차이점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교구 성보대장

과 미작성 사찰에 대한 성보대장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교구 본사에서 해당 교구 말사에 대한 종단 성보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교구행정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종단성보대장 수정 후 오는 6월까지 각 교구본사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종단·교구·사찰 성보대장 일치 위한 방안으로 추진 교구성보 열람권한 부여도 6월까지 교구별 검토 요청

또한, 문화부는 사문화된 성보보존법 전면 개정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성보보존법은 2005년 성보박물관 설립 관련 내용이 신설된 후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보대장을 만들어 문화재를 관리토록 했지만 이를 비치한 사찰은 많지 않다.

문화부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해 성보대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가 사찰 운영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진흥을 위해 종단 소속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6 불교문화행사(산사문화예술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일일법회와 사중 기본행사를 제외한 사찰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행사 △지역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자부담 50% 이상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사업에 공모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초 선정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지회 통해 비구니 역량 더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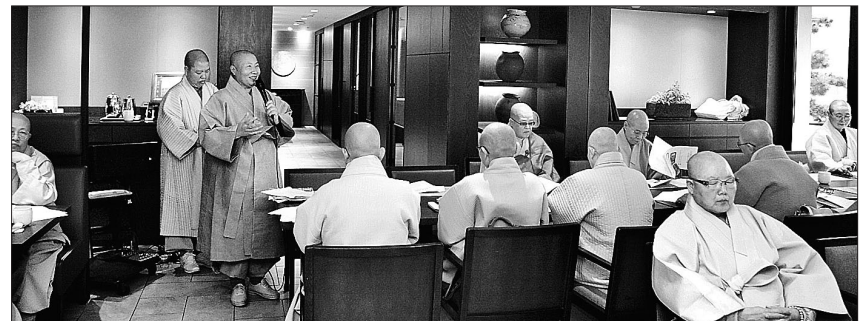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 구성 지회장 요심 스님 만장일치 선출 3월까지 전국에 지회 결성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전국 지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는 1월 28일 부산 해운대조선비치 서실에서 ‘부산지역 전국비구니회 지회 구성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지회구성으로 지방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는 회의를 통해 부산지회 지회장에 요심 스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어 임원직으로 총무 대성암 성공 스님, 교무 스님 용운사 대둔 스님, 재무 부국암 선공 스님이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회장은 앞으로 당연직으로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이 되며 중앙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참석한다.

부산지회 선임회장 요심 스님은 “말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짧게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는 1월 28일 부산 해운대조선비치 서실에서 ‘부산지역 전국비구니회 지회 구성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3개월 안에 전국 지회 결성 및 많은 일을 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그동안 회칙에 따라 전국에 지회를 뒀지만 그 운영방법에 있어 실용성이 떨어져 지역 활동에 도움이 부족했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다. 지방 조직 강화를 통한 의사 소통과 지역 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전국 각 지역 지회장을 새롭게 선출 중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월 22일 대전

비구니정리회 문화회관에서 총청원 지회구성 회의를 거쳐 대전지회 지회장으로 일권 스님과 총북지회 지회장 대우 스님, 충남 지회 지회장 정운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1월 25일 대구 서봉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경북지회 지회장 임대 스님이 뽑혔으며, 1월 26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서울지회는 지회장 해원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와 대구 지회는 차후 논의에 따라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종단통합 특별법’ 6월로 제정 연기

종헌준법특위, 사부대중위원회 요청에 따라... “반드시 성안”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1994년 별면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통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사부대중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종헌준법특위는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발의 연기를 결정했다. 특위는 당초 ‘종단통합조치 특별법’을 성안에 3월 15일 임시종회에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부대중위원회가 6월초까지 중앙종회에 관련활동 결과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요청하며 연기했다.

종헌준법 특위는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부대중위

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중도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6월 이후 열리는 중앙종회에서는 반드시 성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헌준법 특위는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요구한 4개 종헌준법개정안에 대해 원로의원 임기만료 시 자동적으로 명예의원으로 위촉되는 원로의원법 개정을 결의했으며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연령 상한제 폐지에 대해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로의원 불장계권과 종헌 인준시 원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준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능함을 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정상화 위해 이사 추천 절차 생략 종회 연석회의서 추진 결의

중앙종회가 결원된 동국대 이사회의 총원을 위해 종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3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4석의 동국대 이사 추천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종법 상 동국대 이사직은 종관위 복수 추천 후 종회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의장단 연석회의에서의 종회의 추진 결정은 종회 동의와 정을 거칠 경우 지난해 12월 동국대 이사회에서의 사퇴결의 이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이사 스님들이 동반사퇴의 살신성인 조치를 취했는데 절차상 결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결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추천을 통해 2월 중 총원되는 동국대 이사 4석은 임기가 만료된 월정사 삼보 스님, 통도사 명신 스님과 이사직을 사퇴한 수불 스님과 지홍 스님의 후임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용주사 문제 미해결시 대중공의로”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이하 대중공사)가 1월 25일 동국대와 용주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중공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동국대는 화쟁원탁회의를 구성했으나 중단됐으며, 다시 징계와 반발 등으로 근본문제를 풀지 못해 악순환이 될 우려가 높아졌다”며 “학교당국과 이사회, 비대회는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갈등 장기화에는 비대위와 함께 이사회와 학교, 종단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립학교 운영주체로서 종단의 신망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주사 문제에 대해 “연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3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①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 ② 수료 및 졸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주민등록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4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최종 학력증명서

- ③ 편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록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 ④ 전형일정 :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원 ② 2016년 1월 18일 ~ 2월 29일

- ⑤ 합격지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⑥ 특 전 :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⑦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